미술작품을 통하여 본 치과의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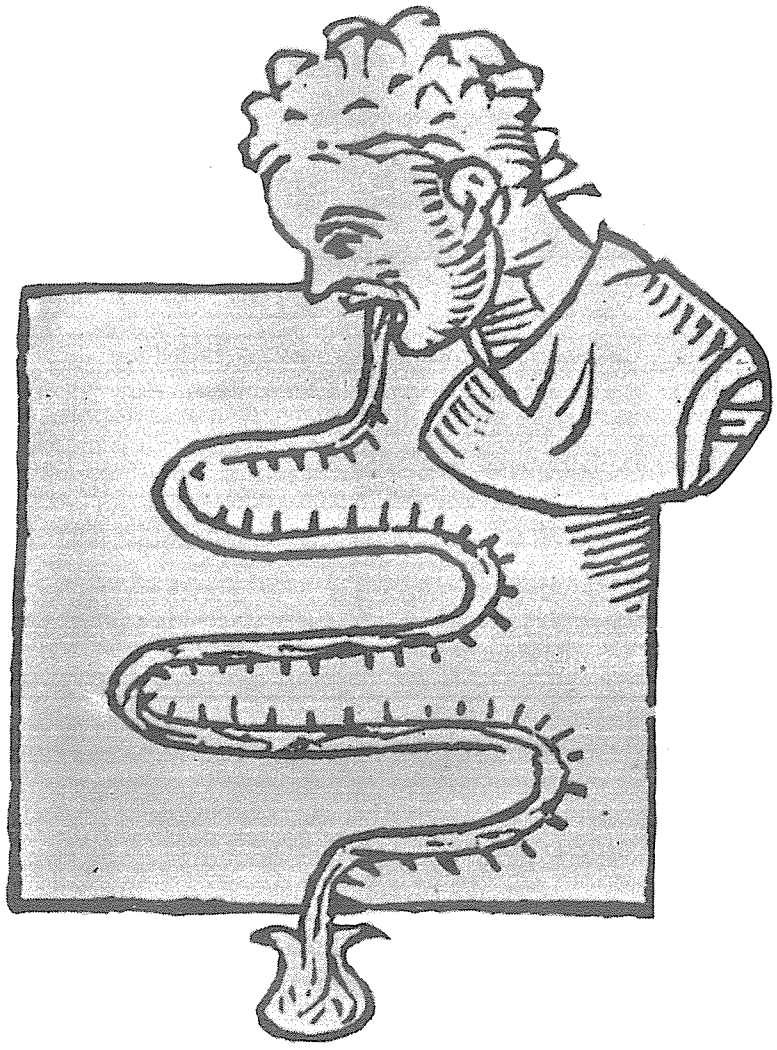
금성 치과의원
김 규 문

最初의 口腔体温計

히포크라테스 時代에도 体温의 重要性은 充分히 認識하고 있었지만 醫師는 自己의 손으로 患者의 皮膚를 만지며 温度를 재는 수 밖에 없었다.

그후 알렉산드리아에서는 患者의 맥박을 重視하게 되며, 体温은 그다음이 되였다. 中世에는 發熱을 臨床所見의 아주 重要한 一面으로 생각했지만, 体温의 科學的 測定은 試圖되지 않았다.

1915年 갈릴레오가 世界最初로 温度計를 만들었지만 이것은 温度의 변화를 대강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고 測定用의 눈금도 없이 大氣壓의 영향을 받는 것이 었다. 그도 同時代人도 이 道具를 의학적으로 利用하는 것은 생각치 않았던것 같다. 그러나 「산토오로」가 정교하지만 성가신 体温側定장치를 1625년 고안하여 그의 저서 「아비켄나의 正典 第1卷의 注釋」에 紹介 하였다.



崔鍾煥치과기공소

서울·종로구 숭인동 1081
전 화 93-6671